

편집장레터

부담과 설렘 사이



한지용 편집장

2019년, 학교에 입학 후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학보사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를 받쳐줄 만한 실력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제 원고는 칼에 찢려 피가 묻든 옷처럼 빨간 줄로 가득했습니다. 새빨간 글씨가 가득했던 제 글을 확인했을 때 느꼈던 처참한 감정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랬던 제가 어느덧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언론의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복학과 동시에 맡게 된 편집장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편집장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오랜 시간 준비했지만, 몰려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조직의 ‘장’을 맡는 것이 처음이 아닌에도 어려운 일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이 아니라 모두가

새 학기와 함께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코로나 19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 낯설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번 3월호의 테마는 ‘새 학기’입니다. 개강을 맞이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과 어울리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졸업식, 신입생 OT 그리고 입학식이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3면에서는 떠나가는 졸업생 학우들의 새로운 도전과 신입생 여러분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담았습니다. 새해부터 난방비 요금 ‘폭탄’을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교통비 역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5면에서는 이로 인해 고통받는 학우들의 시름을 들어보고 구명 난 지갑을 메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새 학기부터 여러 걱정으로 가득한 학우 여러분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랍니다. 기획면에서는 학우들의 소망을 물어보았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새 학기

소망이 이루어져 ‘한국체대 유토피아’가 완성되길 기대해봅니다. 10면에서는 동계 시즌 여러 메달을 획득한 두 병상 유망주 학우를 만나봤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지막 특집면에서는 개강 첫날, ‘KNSB 방송국’과 함께 학교 교정을 돌며 진행한 길거리 인터뷰를 기사로 제작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말하며 기대에 반짝이는 학우들의 눈망울은 우리의 새 학기, 나아가 올 한 해의 목표를 다시 다잡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랑마다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학보사를 모든 학내 구성원의 인정을 받는 ‘진정한 언론기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학보사에 들어온 순간부터 편집장이라는 자리를 꿈꿨고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언제나 학보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보사 기자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밤낮없이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자석 II

이젠 안녕해야 할 ‘학교폭력’



강민지 수습기자

2022년 12월 공개되어 엄청난 화제가 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연출 안길호, 극본 김은숙), 마침내 2023년 3월 10일 2부가 공개되었다.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문 동은(송혜교)’이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한국 드라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별다른 기대 없이 1화를 재생했다. 하지만, 마지막 화까지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미있었다. 다른 드라마와는 달리 가해자가 동은을 괴롭히는 이유가 없다. 그저 동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폭력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동은의 복수도 색달랐다. 가해자들 간 균열을 일으키며 서로 몰락시키게 만든다. 흔히 볼 수 있는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도 찾아볼 수 없다. 드라마 속 동은은 이렇게 말했다. “사과하지 마. 사과받자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다 걸었을까. 넌 별 받아야지.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날 도우면 천벌.” 자그마치 17년간 느리지만 단단하게 준비한 복수다. 더 글로리의 모티브가 된 것은 ‘청주 중학교 고데기 사건’이다. 2006년 5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3명이 고데기, 못핀 등을 이용해 동급생 1명을 지속해 괴롭혔다. 뜨거운 고데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지지기도 했다. 피해자는 팔, 다리, 허벅지, 가슴 전신에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드라마는 해당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러나 실제 가해자들이 어떤 법적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도 주목하지 않았다. 가벼운 수준의 보호관찰 처분이 전부였다. 전과도 남지 않았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의 자리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민은 이 사건이 <더 글로리>의 ‘현실판’이라며 분노했다. 2월 24일, 경찰청은 정순신 변호사를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임명함과 동시에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드러났다. 2017년 정 변호사의 아들은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며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했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 “넌 돼지라 냄새난다.”, “사료나 처먹어야 한다.” 2018년 3월, 피해 학생은 참다못해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의 상황은 심각했다. 가해자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온몸을 떨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과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순신 변호사는 처벌에 불복해 여러 차례 소송을 내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기 위해 그의 지위를 이용했다. 판사 출신의 연수원 동기까지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들의 진술서 내용에 직접 개입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 끝에 2019년 4월 가해자 측이 최종 패소했다. 2017년 5월 처음 언어폭력이 시작된 후 약 2년이 걸렸다. 처분을 기다리는 과정도 고역이다. 반면, 가해자의 상황은 다르다. 서면사과와 봉사활동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강제 전학을 당했던 그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수능 성적만을 100% 반영하는 정시 전형이었기에 가능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본인의 삶을 잃는다. 그렇기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상대에 대한 공감과 자기반성에서 나오는 진심이 담긴 사과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신속하지만 의미 없는 처벌을 내린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가해자가 판사에게 제출하는 형식적인 반성문에만 나타난다. 그마저도 낮은 처벌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이다. 접근금지, 강제 전학, 퇴학 등의 징계는 적절한 처벌이 아니다. 이렇듯 현재 존재하는 법적 제도는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한다. 피해자의 회복은커녕 가해자의 반성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현재를 살고 있다. <더 글로리>는 법적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중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복수’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었다.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 사적 복수를 대리 체험하는 것이다. <더 글로리>를 시작으로 ‘정순신 사태’까지 ‘학교폭력’은 2023년 최고의 화제거리라 해도 무방하다.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 전력이 피해자들에 의해 폭로되거나 피해자가 직접 슬픈 과거를 밝히는 사례도 있었다. 국민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니라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 모두의 변화도 필요하다.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외면하지 않고 부당한 사회현실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자. 작은 변화가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기자석 I

1,000만 시민의 ‘아픈’ 발



기민정 기자

압사당할 것만 같은 뻘뻘한 밀도와 대비되는 고요한 적막. 별안간 그 속에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속삭임이 들려오면, 느슨해진 긴장의 끈을 바짝 부여잡는다. “이번 역은 신논현 역입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면, “밀지 마세요!” 하는 소리와 함께 ‘악’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온다. 인파에 포박당한 몸과 저려오는 두 다리는 밀경이는 열차를 간신히 버텨낸다. 인고(忍苦)의 시간을 견디며 간절히 기도한다. 내려야 하는 역이 호명되기만을, 여기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기를.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이곳은 바로 필자가 매일 같이 통학을 하며 겪는 출퇴근 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 현상이다. 사람이 많아 몹시 붐비고 비좁은 지하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지옥철’. 10개가 넘는 수도권 지하철 라인 중 유일하게 급행으로 운행되는 9호선은 ‘지옥철’이라는 단어가 단연 가장 잘 어울리는 라인 중 하나다. 9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은 주요 직장가가 위치한 곳이거나 환승역이라 유동인구가 유독

많다. 그런데 급행열차는 6량으로 밖에 운행되지 않고, 사람들의 출퇴근 및 통학 시간대가 대부분 동일하다보니 당연히 지옥철이라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격 급한 한국인들에게 급행열차란 얼마나 안정맞춤이겠는가. 통학을 위해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라면 지옥철의 실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학교에 도착하면 강의를 듣기도 전인데 이미 기진맥진하다. 이른 시간이라 안 그래도 몸이 천근만근인데, 아침부터 그런 지옥까지 경험하니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강의를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은 또 어떤가? 집에 갈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고, 제발 내려야 되는 역에 무사히 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가는 내내 마음을 졸인다. 단순히 끼어간다는 불편함만 두고 하소연을 늘어놓는 게 아니다. 우리의 ‘안전’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의구심이 든다. 한번은 퇴근 시간대 급행열차를 타고, 사람이 급격하게 들이차는 자칭 ‘마의 구간’(성정역-신논현역-고속터미널역)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아니나 다를까 열차 안은 포화 상태. 그런데 분홍색의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세상에, 바로 ‘임상부 뱃지’였다. 뱃지를

달고 있는 여성분이 꼭 찬 사람들로 숨쉬기조차 어려워 보이는 그 공간에 끼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둘러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임상부를 위해 마련된 좌석을 살폈지만, 뻘뻘한 사람들 탓에 좌석을 찾기도 힘들뿐더러 비어있다고 해도 발 디딜 틈조차 없어 이동하기 어려워 보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좌석조차 열차 안 들이찬 사람들 앞에선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가장 혼잡한 9호선 급행 라인만을 두고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혼잡도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다른 라인 또는 버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땅한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300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환경보호도 교통혼잡이다 뭐다 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막상 대중교통 이용 실상은 나이지기는커녕 악화되어만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우리는 왜 하다하다 대중교통과 매일 사투를 벌여야 하는 걸까? 왜 돈을 내면서까지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곳에 뛰어들어야 할까? 1,000만 시민의 발이 되겠다던 서울시 대중교통, 되려 시민들의 ‘아픈’ 발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기자석 III

데이원 스포츠와 농구 대통령 허재,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강현석 기자

‘고양 캐롯 점프스’(이하 캐롯)란 국내 프로 농구 리그(이하 KBL) 소속 신생팀이다.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이하 오리온)를 인수해 2022년 8월 25일 창단되었으며, ‘데이원자산운용’을 모기업으로 하는 ‘데이원스포츠’(이하 데이원)와 구단주 ‘허재’가 이끌고 있다. KBL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농구 대통령 ‘허재’를 기점으로 저조했던 인기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한 허재가 구단주로 있는 팀인 캐롯이 현재 매각 위기에 처해있다. 농구 인기몰이의 선두 주자였던 만큼 그의 팀이 매각 위기와 여러 문제 상황에 휩싸인 것은 한국 농구에 큰 타격을 입히는 상황이다. 데이원은 이전 구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미납하였고, 곧이어 리그 가입비 및 선수 월급도 지급하지 못했다. 또한 트레이드에서 보상선수 없이 탐급 선수를 헐값에

팔아넘긴 바 있다. 이에, 구단 재정을 선수 판매를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목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데이원 측은 그에 맞는 공식 입장도 내놓지 못한 상태이다. 9개 구단과 농구 팬들은 현 상황을 예견한 걸까? 앞서 나머지 9개 구단에 의해 캐롯의 리그 가입이 보류된 바 있다. 위 상황에 구단 관계자들은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 네이밍 스폰서 이외에도 기타 상품 판매 및 구장 티켓 등으로 구단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데이원 측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한 세대를 풍미하고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인기몰이를 하던 허재를 구단주로 정했다. 더불어 선수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구단주를 선정함으로써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금력이 뛰어난 구단도 운영이 쉽지 않은데 데이원자산운용은 22년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회사라 데이원이 무자본 구단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데이원은 이 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단 매각이라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그렇다면 허재는 데이원 측의 신선한 구단주 제안에 피해

만 본 상황인 걸까? 허재는 TV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다른 구단주들은 회사 일을 하지만, 자신은 ‘농구’에 100% 몰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허재가 농구에 대한 지식이나 선수들 플레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같이 한 구단이 힘없이 무너지고, 이후로 연고지까지 바뀔 수 있는 마당에 팬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누가 책임져줄 것인가? 농구 대통령 허재를 구단주로 내세워 눈길을 끈 것은 누구나 신선하다고 생각할 아이디어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한국 농구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 허재이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농구 전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리그 승인이 보류된 지점에 허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다면 어땠을까. 데이원 측도 마찬가지이다. 파격적인 도전이었지만 그러한 역전이 되지 않는 기업임을 알고 도전을 늦췄더라면 현 상황은 면하지 않았을까? 프로리그 산업화 및 농구 산업 부흥을 이끌겠다는 포부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진행될 구단 매각과 허재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체육대학보

http://news.knsu.ac.kr

발행인 | 안용규      주 간 | 허진석      기 획 | 김세준      편집장 | 한지용

기 자 | 기민정 · 김수빈 · 박소영 · 권규태 · 박서진 · 송현일 · 원지호 · 강민지 · 강현석 · 이선우 · 박정운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필승관 B106호

전 화 | (02)410-6556